

## 『黃帝內經』의 ‘從容’ 의미에 대한 研究

<sup>1</sup>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部 教授

柳姪我<sup>1\*</sup>

### The Meaning of Jongyong(從容) in the 『Huangdineijing』

Lyu Jeong-ah<sup>1\*</sup>

<sup>1</sup>Professor at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utilitarian values of 'Jongyong(從容)' in medicine by studying its meaning in the 『Huangdineijing』.

**Methods** : Examples of 'Jongyong(從容)' usages in Chinese literature and classical texts were studied first. Next, the similarities and characteristics of its contexts in discourses between Leigong and Huangdi were examined, followed by further examination of the overall meanings of the six chapters, 『Shicongronglunpian(示從容論篇)』, 『Zhuzhijiaolunpian(著至教論篇)』, 『Shuwuguolunpian(疏五過論篇)』, 『Zhengshishilunpian(徵四失論篇)』, 『Yinyangleilunpian(陰陽類論篇)』, 『Jiejingweilunpian(解精微論篇)』 and the verses that include 'Jongyong(從容).'

**Results** : Generally 'Jongyong(從容)' describes a resilient attitude that responds appropriately and calmly to difficult external situations while maintaining one's character, or refers to one's general behavior. In the 『Huangdineijing』, 'Jongyong(從容)' is only mentioned in discourses between Leigong and Huangdi, which talks about ancient East Asian clinical medicine in general, its transmission and education. Here, the meaning of 'Jongyong(從容)' could be summarized as an expansion of analogical thinking[引比類], medical work that involves the physician's commitment(人事), and detailed measurement of yinyang difference in the body(刑法, 陰陽, 治數).

**Discussion** : In ancient East Asian medicine, the meaning of 'Jongyong(從容)' is closer to measurement of the yinyang difference rather than differentiation of the five element analogy. It is a medical practice that measures the shape, volume, length, area, height, concentration etc. of the human body in numerical figures to allow for the most subtle comparison, which was an important aspect of the physician's work that needed to be demonstrated, educated and transmitted to later generations to enable continuity of the medical profession.

**Key words** : Jongyong(從容), Huangdineijing(黃帝內經), diagnosis, physician's work, medica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 Lyu Jeong-ah.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Korea.

Tel: +82-51-510-8451, E-mail: Lyuja@pusan.ac.kr.

Received(October 25, 2020), Revised(November 3, 2020), Accepted(November 3,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黃帝內經·素問』 제76편은 「示從容論篇」으로, 이 편과 전후의 제75 「著至教論篇」, 제77 「疏五過論篇」, 제78 「徵四失論篇」, 제79 「陰陽類論篇」, 제81 「解精微論篇」 여섯 편에는 ‘從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들 여섯 편 『素問』에 등장하는 ‘從容’은 현대의 한의학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나 “示從容論”이라는 편명이 있음을 볼 때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적어도 81편 중 한 편의 중심 주제가 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가지는 용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示從容論篇」은 黃帝가 雷公과 문답하면서 雷公이 “以知其比類也.”라고 하며 ‘比類’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고 말한 誤診에 대해 黃帝가 “夫從容之謂也.”라고 깨우쳐주며 병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질병을 파악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설교하고, 특정 임상례의 증상과 진단, 병리, 치법을 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黃帝가 제자인 雷公을 꾸짖거나 추어주거나 평소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제의 실수를 그럴 만하다고 해아려주거나 급기야 제자의 부족함을 스승인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서, 고대에 사제 전승의 방법으로 의학이 교육되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현장감 있게 펼쳐져 있다. 「示從容論篇」 내용의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從容’은 의학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示從容論”이라는 篇題는 黃帝가 제자인 雷公에게 의사가 ‘從容’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행하여야 하는지 몸소 보이며 깨우쳐 준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從容’은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 ‘比類’로써 인체 현상을 파악하는 인식 작용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比類’로 완성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으며, 질병을 파악하는 진단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의학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素問·示從容論篇』에 포착된 ‘從容’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면면에 착안하여 ‘從容’ 단어가 등장하는 「示從容論篇」, 「著至教論篇」, 「疏五過論篇」,

「徵四失論篇」, 「陰陽類論篇」, 「解精微論篇」 여섯 편 속 구절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從容’의 의학적 의미와 효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의학적 의미와 효용에 바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從容’의 보다 일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장해 가야 하므로, ‘從容’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와 中文 및 古典 문장에서의 용례를 먼저 고찰하였다. 또한 ‘從容’은 雷公이 등장하는 篇에만 나오고 있음에 주목하여 『黃帝內經』 중 雷公·黃帝 問答篇이 지니는 특징도 함께 고찰하였다.

의학 이외 문헌에 쓰인 ‘從容’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로 宋聞兵의 「“從容”拾義<sup>1)</sup>」가 있다. 이 연구에서 宋은 기존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온 ‘從容’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용례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고전 원문의 본의에서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 적지 않아 보였다.

『黃帝內經』에 쓰인 ‘從容’의 의미에 대하여 朴炫局 등의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sup>2)</sup>」에서 일부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黃帝와 雷公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편에 등장하는 規度, 奇恒, 陰陽, 從容, 雌雄, 五中, 終始, 比類, 明堂, 人事 등 용어가 진단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증하는 가운데 ‘從容’을 書名이나 寸口脈候에 시행하는 脈法으로 귀납하였다. 朱玲 등은 「《素問》“從容”淺識<sup>3)</sup>」에서 ‘從容’의 용례를 古經의 篇名, 거동이 안정한 것, 天道 및 陰陽之道, 환자의 안색과 용모를 따라 病情을 구하는 진단 행위, 中道를 따른다는 뜻, 의사가 진단할 때 상세히 살피는 것, 雷公이 묻고 黃帝가 대답하는 篇에만 등장함 등으로 분석한 후 일치된 공통의 결론을 도출하긴 어려우나 ‘從容’은 맥상이나 진맥과 모종의 상관성을 가지며, 또한 진맥의 방법 또는 진맥 시 의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1) 宋聞兵. “從容”拾義. 古漢語研究. 2004. Vol.65. pp.106-109.
- 2) 朴炫局, 金基郁.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pp.81-94.
- 3) 朱玲, 古文輝. 《素問》“從容”淺識.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07. 9(6). pp.33-34.

『黃帝內經』에 쓰인 ‘從容’의 의미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의 한의학에서 ‘從容’이라는 단어가 그 존재와 개념조차 망각된 현실을 돌이켜보고, ‘從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의사의 의학적 행위의 하나로서 의지를 실어 수행하지 않게 되어버린 현실이 한의학 자체의 발전 동력 상실과 유관한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자 한 의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從容’을 오늘날의 한의학 기초와 임상 및 교육에 있어서 되살려야 할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보고 그 실체를 밝혀보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 II. 본론

### 1. 醫學 이외 문헌에 쓰인 ‘從容’의 의미

‘從容’은 의학 문헌 이외의 문헌에 다수의 용례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처하는 태도가 진정·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당황하거나 급박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다. 시간이나 경제 상황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따라서 안정, 평정, 徐緩, 냉정, 안녕, 穩重, 緩慢, 자계, 安穩, 침착의 뜻과 관련 있으며 반대의 뜻으로는 갑자기, 급박하게, 재촉함, 긴장, 여유가 없음 등이 있다.<sup>4)</sup> 이러한 뜻으로 쓰인 용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舊唐書·劉思禮傳』에 劉思禮가 황제의 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계획을 세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從容自若’하게 일을 처리해나가는 태도를 형용한 것이다.<sup>5)</sup> 여기서 쓰인 ‘從容’의 용례를 줄여서 보통 ‘從容不迫’이라고 이른다.

‘從容’은 절도를 조정하여 時宜에 부합한다는 뜻이며<sup>6)</sup>, 느리거나 뒤처지거나 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近思錄·政事』에는 “감정으로 분개하여 몸을

죽임은 쉽고, 이성으로 사리에 맞게 의로움에 나아감은 어렵다.”<sup>7)</sup>라고 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해가는 것을 ‘從容就義’라고 하고 있다.

‘從容’에는 또 현실에 꺾이거나 물들지 않고 자신의 뜻과 포부를 깨끗하게 간직하면서 펼친다, 표현한다는 뜻도 있다. 『離騷』등 『楚辭』를 남긴 屈原에 대해 司馬遷은 『史記·屈原賈生列傳』에서 “屈原 사망 후 초나라에는 宋玉, 唐勒, 景差의 무리가 있어 모두 辭를 좋아하고 賦를 잘 지어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屈原의 깨끗한 언사를 본받았으나 끝내 감히 직간을 하지 못하였다.”<sup>8)</sup>라고 평하였다. 여기서 ‘從容辭令’은 司馬遷이 『離騷』 등에서 보이는 屈原의 서사시적인 형태의 ‘直諫’을 형용한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從容’의 다른 중요한 뜻으로는 사람의 행동거지 자체 즉 ‘舉動’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禮記·緇衣』에 “백성을 기르는 사람은 의복이 튀어서는 안되며 행동거지에 일정함이 있어야 한다.”<sup>9)</sup>라고 하고, 이에 대한 孔穎達의 疏에 “행동거지에 일정함이 있다는 것은, 從容은 舉動을 이르니 그 평상의 분수가 있는 것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또 『楚辭九章·懷沙』에 “舜임금[重華]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네, 누라서 나의 행동거지를 알아줄까.”<sup>11)</sup>라고 하고 王逸의 注에 “從容은 舉動이다.”<sup>12)13)</sup>라고 하였다.

7) 朱熹, 呂祖謙, 張伯行 集解. 近思錄集解. 臺北. 世界書局. 1975. p.281. “伊川曰, 感慨殺身者易, 從容就義者難.”

8)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562. “屈原既死之後, 楚有宋玉, 唐勒, 景差之徒者, 皆好辭而以賦見稱, 然皆祖屈原之從容辭令, 終莫敢直諫. 其後楚日以削, 數十年竟爲秦所滅.”

9) 陳澧注. 禮記集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300. “子曰, 長民者, 衣服不貳, 從容有常, 以齊其民, 則民德壹.”

10) 鄭玄 注. 孔穎達 疏. 阮元 校勘撰. 十三經注疏·禮記注疏(影印本). 서울. 學古方. 발행년미상. p.3575. “正義曰, 從容有常者, 從容, 謂舉動, 有其常度.”

11) 屈原 著, 崔富章, 李大明 主編. 楚辭集校集釋·下.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5. p.1605. “重華不可遇兮, 孰知余之從容.”

12) 屈原 著, 崔富章, 李大明 主編. 楚辭集校集釋·下.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5. p.1605. “從容, 舉動也.”

13) 屈原 著, 劉向 集. 王逸 章句. 洪興祖 註. 楚辭補註. 臺北. 廣文書局有限公司. 1962. p.519. “從容, 舉動也. 言望時重華不可逢遇, 誰得知我舉動欲行忠信也.”

4) 從容(漢語詞語). 百度詞典. 北京. 百度網訊科技有限公司. 2015. [cited on October 7, 2020]: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item/%E4%BB%8E%E5%AE%B9/3607?fr=aladdin>

5) 張昭遠 外 4人 共編, 許嘉璐 再主編. 舊唐書·第三冊.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1819. “懿宗寬思禮於外, 令廣引逆徒. 而思禮以爲得計, 從容自若, 嘗與相忤者, 必引令枉誅. 臨刑猶在外, 尚不之覺, 及衆人就戮, 乃收誅之.”

6) 宋開兵. “從容”拾義. 古漢語研究. 2004. Vol.65. p.106. “蔣禮鴻先生認爲從容消息, 皆爲調停節度, 使合時宜也.”

이로써 볼 때 의학 이외 문헌에서 ‘從容’은 대체로 사람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여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지녀 외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침착하고 꾸준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또 ‘舉動’ 즉 사람의 행동거지 자체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 2. 『黃帝內經』 중 雷公·黃帝 問答篇

『黃帝內經』에서 ‘從容’은 제76 「示從容論篇」을 비롯하여 제75 「著至教論篇」, 제77 「疏五過論篇」, 제78 「徵四失論篇」, 제79 「陰陽類論篇」, 제81 「解精微論篇」 여섯 편에만 등장하며 『素問』의 나머지 편들과 『靈樞』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從容’이 등장하는 이 여섯 편들은 모두 黃帝와 雷公이 각각 의학의 스승과 제자로서 문답하는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黃帝와 雷公의 문답이 등장하는 편은 이 여섯 편 외에 『素問·方盛衰論篇』, 『靈樞·經脈』, 『靈樞·禁服』, 『靈樞·五色』, 『靈樞·官能』 다섯 편이 더 있다. 「經脈」은 12경맥의 순행부위와 병중·死候 및 15락맥의 시작부위와 병중 등이 계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sup>14)</sup> 「禁服」은 雷公이 黃帝에게 刺鍼의 원리를 질문하자 黃帝가 敵血 의식 후 맹세를 받고서 그 원리를 人迎寸口 비교맥법 및 虛實에 따른 치료대법 등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5)</sup> 「五色」의 경우 안면부위를 望診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논하는 내용이 주가 되며, 맥상으로 병의 진퇴를 판단하는 법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sup>16)</sup> 「官能」의 경우 주로 黃帝와 岐伯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제4장만 雷公과 黃帝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 「官能」의 앞 세 장은 鍼法에 대한 총론적인 성격의 글로써 刺鍼의 원리, 원칙, 여러 가지 침법과 병증에 따른 選穴, 보

사법 등을 상세히 논한 것이다. 반면 마지막 제4장은 篇名인 “官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鍼論曰,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 何以知其可傳.”으로 시작해 고대 동아시아 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세부 분야 의료인에게 각각 요구되는 자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sup>17)</sup> 따라서 黃帝와 岐伯이 문답하는 앞 세 장과 雷公과 黃帝가 문답하는 마지막 제4장은 원래는 다른 계열의 학설로서 그 편제도 현재의 『靈樞』 이전에 각각 다른 원출전에 속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素問·方盛衰論篇』은 陰陽의 盛衰와 五臟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의사가 올바른 덕과 능력을 갖추어 진단하는 道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8)</sup>

한편 ‘從容’이 등장하는 여섯 편은, 「著至教論篇」은 三陽의 병리를 중심으로 의학을 학습하는 방법 및 근본적인 의학의 이치에 대해 黃帝가 雷公을 불러 문답하며 논하였다.<sup>19)</sup> 「示從容論篇」은 “頭痛筋擊骨重, 怏然少氣, 噦噫腹滿, 時驚, 不嗜臥” 및 “四肢解惰, 喘效血泄” 두 임상례를 들어 雷公의 誤診에 대해 黃帝가 몸소 ‘從容’의 시범을 보이며 그 병리 및 병중 감별에 대해 논하였다.<sup>20)</sup> 「疎五過論篇」은 의사가 진단을 할 때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과오에 대해 黃帝가 雷公에게 소상히 설명하였다.<sup>21)</sup> 「徵四失論篇」은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 범하기 쉬운 네 가지 과실에 대해 黃帝가 雷公에게 다소 엄중하게 훈계하였다.<sup>22)</sup> 「陰陽類論篇」은 立春날 雷公이 논설한 봄과 肝木의 五行歸類에 대해 黃帝가 三陰三陽의 陰陽類論을 전개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해 雷公이 ‘從容’의 도를 외워 얻어 ‘從容’에 합치된다고 납득하는 대목이 나온다.<sup>23)</sup> 「解精微論篇」은 눈물과 콧물

1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79-85.  
 1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221-222.  
 1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226-228.

1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305-306.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21-322.  
 1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9.  
 2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1-312.  
 2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3-314.  
 2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이 생성되는 원리 및 울음과의 관계에 대해 黃帝가 雷公에게 설명하였다.<sup>24)</sup>

『黃帝內經』에서 黃帝와 의학을 문답하는 岐伯, 伯高, 雷公, 少師, 少俞, 鬼臾區 등의 신하는 고대 동아시아 의학 성립기에 조금씩 차별성을 띠는 특정한 학과를 대표하여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26)</sup> 이들 중 雷公으로 상징되는 학과는 경락의 순행 부위와 그 병증, 刺鍼法, 脈診과 望診 등의 진단법에 대해 주로 논하였으며, 이 학과의 학설은 戰國시기부터 後漢시기까지의 상당히 긴 『黃帝內經』 저작 기간 중 비교적 앞서는 시기인 前漢代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7)</sup> 즉 戰國시기 말엽에서 秦과 漢初期에 걸친 즈음에 중국의 九州를 중

황으로 연결하는 江·運河를 본따 인체내에 經脈이라는 공조 시스템을 완성하고, 여기에 기반하여 小(微)鍼으로 경맥에 흐르는 脈氣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百病을 다스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의학이 발명되었다.<sup>28)</sup> 雷公과 黃帝의 문답이 담긴 편은 西漢初期에 이러한 의학 신기술을 막 정립하고, 기틀을 갖추고, 전수하려는 의도에서 저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해당 편들을 살펴보면 『黃帝內經』의 저자들이 저술 당시에 참고하였을, 戰國~秦漢 시기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의학 저작의 명칭이 다수 출현한다.

표 1. 『黃帝內經』 중 雷公·黃帝 問答篇에 등장하는 의학 저작 및 淳于意 수업 의학 저작

雷公·黃帝 問答篇	등장하는 의학 저작	史記·扁鵲倉公列傳 淳于意 수업 의학 저작 <sup>25)</sup>
素問·著至教論篇	醫道論篇, 陰陽傳	
素問·示從容論篇	脈經·上下篇, 從容, 診經(經)	(黃帝扁鵲之)脈書, 脈書·上下經
素問·疎五過論篇	經, 上經, 下經, 規度, 陰陽, 奇恒	上下經, 規度, 陰陽, 奇咳術
素問·徵四失論篇	經	
素問·陰陽類論篇	上經, 下經, 陰陽, 從容, 雌雄, 經論	陰陽
素問·方盛衰論篇	經脈, 奇恒之勢60首, 經	奇咳術
素問·解精微論篇	經論, 從容(形法), 陰陽(刺久), 湯藥(所滋), 經, 經(言)	藥論
靈樞·經脈	禁脈(服)	接陰陽禁書
靈樞·禁服	九鍼·60篇, 外揣, 書, 大數	石神, 外變
靈樞·五色	없음	五色診
靈樞·官能	鍼論	

2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8-319.

2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24-325.

25)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785. “慶年七十餘, 意得見事之, 謂意曰, 盡去而方書, 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 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生死,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 甚精. 我家

현실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하나의 학설로 정립하고자 할 때 그 발견을 지지해줄 만한 기존의 이론과 문헌을 동원해서 체계를 잡고 권위를 세우는 학문 발전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雷公과 黃帝의 問答篇에 등장하는 기존의 의학 저작이 다른 편들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점은 해당 편들이 『黃帝內經』 저작의 비교적 앞선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또한 『史記·扁鵲倉公列傳』에 등장하는 西漢初期 실존 인물인 淳于意가 그 스승인 陽慶에게 전수받은 것으로 기록된 의학 저작의 명칭과 雷公·黃帝 問答篇에 등장하는 의학 저작의 명칭 및 篇名을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雷公과 黃帝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편들의 저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한다.

「倉公列傳」을 살펴보면 淳于意는 病名이 같은 여러 질병들의 정확한 실정을 주로 脈診을 통해 판단하고 있으며, 더불어 안면부에서 오색을 관찰하는 五色診 즉 望診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sup>26)</sup> 淳于意가 진료한 임상례를 기록한 診籍의 내용이 그가 전수받은 의학 저작의 성격과 일치하며, 그에게 의학의 전수를 청한 宋邑, 高期, 王禹, 馮信, 杜信, 唐安 등의 인물에게 전수한 내용 또한 五色診, 경맥의 분포, 氣의 上下出入邪正逆順, 診脈法, 奇咳術, 四時應陰陽

重 등으로 診籍의 내용 및 전수받은 의학 저작의 성격과 일치한다.<sup>30)</sup>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淳于意는 어려서부터 의학을 배우기를 좋아하여 公孫光 등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며 전수받았으며, 陽慶에게 많은 의학 저작과 의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까닭도 배우기를 지극히 즐겨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학습자로서의 겸손하고 진지한 면모 때문이었다는 점이다.<sup>31)</sup> 陽慶은 淳于意로 하여금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게 하고, 새로이 자신의 비방들을 다 淳于意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黃帝와 扁鵲의 脈書, 다섯 가지의 얼굴색으로 병을 진단하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sup>32)</sup> 診籍 중에도 齊나라의 侍醫 遂가 자신의 병에 기존의 의학이라 할 수 있는 扁鵲의 陰石, 陽石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적용해 誤治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칙 없이 陰陽의 체계를 잘못 적용했다고 논한 부분이 있다.<sup>33)</sup> 이를 보면 西漢初期 무렵 戰國시기의 의학이라 할 수 있는 扁鵲의 의술과는 차별되는 보다 체계적인 의학이 『脈書上下經』, 『五色診』 등에 정리되어 자질이 훌륭한 인재에로의

給富, 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悉教公. 臣意即曰, 幸甚, 非意之所敢望也. 臣意, 卽避席再拜謁, 受其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規度陰陽外變, 藥論, 石神, 按陰陽禁書, 受讀解驗之, 可一年所.”

- 26) 아마다게이지 저. 윤석희, 박상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 pp.390-394.
- 27) 강민휘, 김기욱. 뇌공-황제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17. 30(2). pp.84-85, 99.
- 28) 柳姪我. 『黃帝內經』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 -戰國~漢 時代精神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1). pp.152-158.
- 29)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p.1785-1786. “所以知成之病者, 臣意切其脈, 得肝氣. 肝氣濁而靜, 此內關之病也.”, p.1786. “所以知小子之病者, 診其脈, 心氣也, 濁躁而經也, 此絡陽病也.”, p.1791. “所以知奴病者, 脾氣周乘五臟, 傷部而交, 故傷脾之色也, 望之殺然黃, 察之如死青之炷, 衆醫不知, 以爲大蟲, 不知傷脾. 所以至春死病者, 胃氣黃, 黃者土氣也, 土不勝木, 故至春死.”, p.1792. “所以知建病者, 臣意見其色, 太陽色乾, 腎部上及界要以下者枯四分所, 故以往四五日知其發也.”

- 30)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798. “對曰, 臨菑人宋邑, 邑學, 臣意教以五診歲餘. 濟北王遣太醫, 高期王禹學, 臣意教以經脈高下及奇絡結, 當論俞所居, 及氣當上下出入邪正逆順, 以宜鑱石, 定砭灸處. 歲餘. 菑川王時遣, 太倉馬長馮信正方, 臣意教以案法逆順, 論藥法, 定五味和齊湯法. 高永侯家丞杜信, 喜脈, 來學, 臣意教以以上經脈五診, 二歲餘. 臨菑召里唐安來學, 臣意教以五診上下經脈, 奇咳, 四時應陰陽重, 未成, 除爲齊王侍醫.”
- 31)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797. “臣意不聞師慶爲方善也. 意所以知慶者, 意少時好諸方事, 臣意試其方, 皆多驗, 精良. 臣意聞菑川唐里公孫光, 善爲古傳方, 臣意卽往謁之. 得見事之, 受方化陰陽及傳語法, 臣意悉受書之. 臣意欲盡受他精方.”, p.1798. “光又屬意於股曰, 意好數, 公必謹遇之, 其人聖儒. 卽爲書以意屬陽慶, 以故知慶. 臣意事慶謹, 以故愛意也.”
- 32)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785. “慶年七十餘, 意得見事之. 謂意曰, 盡去而方書, 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 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生死,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 甚精.”
- 33)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p.1794. “齊王侍醫遂病, 自練五石服之. …遂曰, 扁鵲曰, 陰石以治陰病, 陽石以治陽病. …臣意曰, 公所論遠矣. 扁鵲雖言若是, 然必審診, 起度量, 立規矩, 稱權衡, 合色脈表裏有餘不足順逆之法, 參其人動靜與息相應, 乃可以論. …意告之後百餘日, 果爲疽發乳上, 入缺盆, 死. 此謂論之大體也, 必有經紀, 拙工有一不習, 文理陰陽失矣.”

전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들 雷公·黃帝 問答篇들은 黃帝가 스승으로서 제자인 雷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하는 장면이 상당히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묘사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著至教論篇」에는 黃帝가 明堂에 앉아 雷公을 불러 醫道를 아는가 하고 물으니 雷公이 자신의 그간 학습한 의학의 내용과 수준을 진술하며 神農·伏羲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을 청한다.<sup>34)</sup> 이에 黃帝가 화답하여 설명하면서 수차 문답이 이어지는데, 그 문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즉 醫書나 古典에서 문답을 문장서술 방식의 하나로써 채택하여 或者를 내세워 질문을 형식적으로 상정하는 저술과는 아주 다르다. 雷公은 黃帝의 질문이나 설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새로운 病理를 제시해 질문하거나, 黃帝의 설명을 들은 후 더욱 상세한 설명을 청하기도 해서 師弟 傳承의 열띤 강연이 펼쳐지고 있는 강의실을 눈앞에 보는 것 같다.<sup>35)</sup>

「示從容論篇」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편에는 특별히 黃帝가 雷公을 불러 그간의 학습한 바를 시험하여보면서 『脈經·上下篇』 이상의 수준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6)</sup> 또한 雷公이 “於此有人, 頭痛筋攣骨重, 怏然少氣, 噦腹脹滿, 時驚, 不嗜臥” 및 “於此

有人, 四肢解惰, 喘欬血泄” 두 가지 임상례에 대해 자신의 진단 및 치료 상의 어려움을 질문하자 黃帝가 각각의 임상례에 대해 그 병리 및 변별점을 소상히 설명하여 雷公을 가르치고 있다. 黃帝가 雷公을 교육하는 말 가운데에는 “公何年之長, 而問之少, 余眞問以自謬也, 吾問子窈冥, 子言上下篇以對, 何也.”, “子所能治, 知亦衆多, 與此病失矣.”, “是失吾過矣. 以子知之, 故不告子.” 등으로 雷公을 질책하거나, 평소의 공부를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잘못되었다고 보아 주거나, 급기야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언급하지 않은 자신의 과오라며 자책도 하는 스승의 마음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sup>37)</sup> 그리고 “示從容論”이라는 이편의 篇名으로 미루어볼 때 두 가지 임상례에 대해 雷公이 부족한 점은 ‘從容’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며, 黃帝는 몸소 ‘從容’하는 과정을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의사가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疎五過論篇」과 「微四失論篇」 역시 黃帝가 雷公을 불러 醫事의 五過, 四德, 得失 등에 대해 질문한 후 雷公이 만족할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어서 상세한 설명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sup>38)39)</sup> 「微四失論篇」에는 “雷公對曰, 循經受業, 皆言十全, 其時有過失者, 請聞其事解也.”라며 배운 것과 임상 현실의 괴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자의 마음과 “子年少, 智未及邪, 將言以雜合也.”라며 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자를 질책하면서 답답해하는 스승의 마음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始以自怨, 遺師其咎.”라며 자신이 잘못 배운 허물을 스승에게 돌린다고

3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9. “黃帝坐明堂, 召雷公而問之曰, 子知醫之道乎. 雷公對曰, 誦而頗能解, 解而未能別, 別而未能明, 明而未能彰, 足以治群僚, 不足至侯王, 願得受樹天之度, 四時陰陽合之, 別星辰與日月光, 以彰經術, 後世益明, 上通神農, 著至教, 疑於二皇. 帝曰, 善, 無失之, 此皆陰陽表裏, 上下雌雄, 相輸應也. 而道上知天門,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以教衆庶, 亦不疑殆, 醫道論篇, 可傳後世, 可以爲寶. 雷公曰, 請受道訓用解.”

3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9.

3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黃帝燕坐, 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 若能攬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 爲余言子所長, … 帝曰, 子別試通五藏之過, 六府之所不和, 鍼石之敗, 毒藥所宜, 湯液滋味, 具言其狀, 悉言以對, 請問不知, … 帝曰, 公何年之長, 而問之少, 余眞問以自謬也, 吾問子窈冥, 子言上下篇以對, 何也.”

3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1-312.

3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3. “黃帝曰, 嗚呼遠哉, 閱閱乎若視深淵, 若迎浮雲, 視深淵尙可測, 迎浮雲莫知其際. 聖人之術, 爲萬民式. 論裁志意, 必有法則, 循經守數, 按循醫事, 爲萬民副. 故事有五過四德, 汝知之乎. 雷公避席再拜曰, 臣年幼小, 蒙愚以惑, 不聞五過與四德, 比類形名, 虛引其經, 心無所對.”

3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黃帝在明堂, 雷公侍坐, 黃帝曰, 夫子所通書受事衆多矣, 試言得失之意, 所以得之, 所以失之. 雷公對曰, 循經受業, 皆言十全, 其時有過失者, 請聞其事解也.”

경계·한탄하는 말과 “是故治不能循理，棄術於市，妄治時愈，愚心自得.”이라며 진정한 의술이 아니라 어찌다 한번 우연히 치료에 효과가 난 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치부하는 초보 의사의 어리석음 등이 현실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sup>40)</sup>

『陰陽類論篇』에는 立春날 黃帝가 雷公을 불러 ‘陰陽之類’와 ‘經脈之道’와 ‘五中所主’로 보았을 때 어느 臟이 가장 귀한가 하고 물으니 雷公이 봄의 오행 歸類를 논하여 肝이 가장 귀하다고 답한다.<sup>41)</sup> 그러나 黃帝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上經』 『下經』 『陰陽』 『從容』의 의학 저작을 살펴보면 雷公이 귀하다고 한 것이 가장 낮은 것이라며 三陽과 三陰 경맥 각각의 특징과 정상맥상 및 병맥상 그리고 死候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듣기를 마친 雷公이 “臣悉盡意，受傳經脈，頌得從容之道，以合從容，不知陰陽，不知雌雄.”이라며 전수받은 경맥의 내용에서 『從容』의道を 외워 얻어 보니 ‘從容’에 합치되지만 ‘陰陽’과 ‘雌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며 질문을 이어 간다.<sup>42)</sup>

『方盛衰論篇』의 마지막 제3장에는 의사가 진단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요령의 대체가 서술되어 있다. 예컨대, “起坐有常，出入有行，以轉神明，必清必淨.”은 태도의 부분이고 “上觀下觀，司八正邪，別五中邪，按脈動靜，循尺滑濇，寒溫之意 視其大小，合之病能，逆從以得，復知病名，診可十全.”은 요령의 대체 부분이다. 이 부분은 雷公의 물음에 대해 길게 이어지는 黃帝 설명의 일부분이다.<sup>43)</sup>

『靈樞禁服』에는 雷公이 ‘外揣’라는 의학 저작에 나오는 ‘渾束爲一’에 대해 黃帝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이 수업을 받아 『九鍼·60篇』을 아침저녁으로 죽

간을 묶은 끈이 끊어지고 죽간에 손때가 절도록 옳고 외우고 있는데도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였다고 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 雷公이 질문한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 3일을 재계한 후 정오에 두 스승과 제자가 재실에 들어가 팔을 베어 피를 나누어 마시는 맹세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한다.<sup>44)</sup> 고대에 의학의 전수와 전수받은 수업에 대한 학습이 모두 극히 삼가 진중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靈樞官能』에는 의학을 전수하는 원칙을 “得其人乃言，非其人勿傳”이라 전제하고 당시 의학 제 분야의 ‘其人’을 선별할 수 있는 각각의 자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예컨대 눈이 밝은 사람은 望診을 전수받도록 하고 귀가 밝은 사람은 聞診을 전수받도록 하며 손이 부드럽고 근육이 부드러우며 성정이 고른 사람은 按摩導引을 전수받도록 하는 등이다.<sup>45)</sup>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雷公·黃帝 問答篇에는 의학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문장형식 차원의 문답 설정 이상으로 雷公으로 대변되는 의학 수업·학습자와 黃帝로 대변되는 전수교육자의 의학 학습교육의 다양한 면들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보존되어 있다. 雷公으로 대변되는 의학 수업·학습자의 학습태도, 어려움, 실수, 『脈經·上下篇』과 『九鍼·60篇』 등 공부

4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4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孟春始至，黃帝燕坐，臨觀八極，正八風之氣，而問雷公曰，陰陽之類，經脈之道，五中所主，何藏最貴。雷公對曰，春甲乙青，中主肝，治七十二日，是脈之主時，臣以其藏最貴。”

4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8-319.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22.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21. “雷公問於黃帝曰，細子得受業，通於九鍼六十篇，旦暮勤服之，近者編絕，久者簡垢，然尚誦誦弗置，未盡解於意矣，外揣言渾束爲一，未知所謂也。… 黃帝曰，善乎哉問也，此先師之所禁，坐私傳之也，割臂歃血之盟也，子若欲得之，何不齋乎。雷公再拜而起曰，請聞命於是也。乃齋宿三日而請曰，敢問今日正陽，細子願以受盟，黃帝乃與俱入齋室，割臂歃血。黃帝親祝曰，今日正陽，歃血傳方，有敢背此言者，反受其殃。雷公再拜曰，細子受之。黃帝乃左握其手，右授之書，曰，慎之慎之，吾爲子言之。”

4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6. “雷公問於黃帝曰，鍼論曰，得其人乃傳，非其人勿言，何以知其可傳。黃帝曰，各得其人，任之其能，故能明其事。雷公曰，願聞官能奈何。黃帝曰，明目者，可使視色。聽耳者，可使聽音。捷疾辭語者，可使傳論。語徐而安靜，手巧而心審諦者，可使行鍼艾，理血氣而調諸逆順，察陰陽而兼諸方。緩筋柔筋而心和調者，可使導引行氣。疾毒言語輕人者，可使唾癰疽病。爪苦手毒，爲善善傷者，可使按積抑痺，各得其能，方乃可行，其名乃彰。不得其人，其功不成，其師無名。”

한 의학 서적들, 伏羲神農 수준으로 되고 싶다는 희망 목표가 드러나 있으며 黃帝로 대변되는 의학 전수교육자의 제자에 대한 질책, 인정, 안타까움, 경계와 한탄, 제자의 부족함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자책, 그리고 몸소 ‘從容’을 시범해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또 스승과 제자가 열띤 문답을 이어가는 장습 장면이 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수하기 전에 수일간 재계하고 좋은 시각을 택해 팔을 베어 피를 나누어 마시는 맹세의 의식이 묘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임상례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장면도 보인다. 그리고 「疎五過論篇」과 「徵四失論篇」에 정리된 의사가 진단할 때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과오와 치료할 때 범하기 쉬운 네 가지 과실은 보편적인 의학 이론의 차원이기보다 환자의 지위고하를 물어보라<sup>46)</sup>, 병이 시작될 때 환자의 근심이나 걱정 및 음식과起居가 적절하였는지 독에 상했는지 등을 물어보라<sup>47)</sup>, 스승에게 배우기를 마치지 않고서 제멋대로 잡술을 행해서는 안된다<sup>48)</sup> 등으로 실제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에 임할 때 의사의 행위적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雷公·黃帝 問答篇에는 『黃帝內經』이 문헌 속에 박제되어 정형화된 의학 기초이론으로서의 보편성을 공인받기 이전, 인체를 중형으로 연결해 공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인 經絡의 발명에 기반하여 小(微)鍼으로 그 脈氣의 흐름을 조절함을 핵심 기술로 하는 혁신적인 의학이 막 완성되었을 前漢 무렵의, 임상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고대 동아시아 임상 의학의 대체·개요 및 정황과 그 전수·교육 과정이

담겼다고 생각된다. 특히 雷公이 의학을 전수받고 있음에 대해 皇甫謐은 『鍼灸甲乙經·序』에서 “其論至妙, 雷公受業, 傳之於後.”<sup>49)</sup>라고 언급하였으며 林億은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林億序』에서 “於是雷公之倫, 授業傳之, 而內經作矣.”<sup>50)</sup>라고 기록한 바 있다.

그러므로 『黃帝內經』 중 雷公·黃帝 問答篇에만 등장하는 ‘從容’의 의미와 의의를 고찰함에는 ‘從容’이 고대 동아시아 임상의학의 대체·개요 및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임상의학의 전수·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3. 『黃帝內經』에 쓰인 ‘從容’의 의미

『素問』 제75 「著至教論篇」, 제76 「示從容論篇」, 제77 「疎五過論篇」, 제78 「徵四失論篇」, 제79 「陰陽類論篇」, 제81 「解精微論篇」 여섯 편에는 ‘從容’이 총 12회 나온다.

12회의 용례 중에는 ‘從容’을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7회 있다. 「示從容論篇」에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③《從容》得之.”, “帝曰, 夫④《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府,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藏.”, “明引此類, ⑤《從容》, 是以名曰診經(經), 是謂至道也.”라고 한 것과, 「陰陽類論篇」에 “帝曰, 却念《上下經》《陰陽》⑨《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⑩《從容》之道, 以合⑪《從容》, 不知陰陽, 不知雌雄.”이라고 한 것과, 「解精微論篇」에 “黃帝在明堂, 雷公請曰, 臣授業傳之, 行教以經論, ⑫《從容》形法, 《陰陽》刺灸, 《湯藥》所滋, 行治有賢不肖, 未必能十全.”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從容’을 비롯하여 함께 쓰인 ‘陰陽’, ‘湯藥’ 같은 단어를 의학 저작의 명칭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보고 해석하여 도 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3. “診有三常, 必問貴賤, 封君敗傷, 及欲侯王, 故貴脫勢,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 始富後貧, 雖不傷邪, 皮焦筋屈, 痿痺爲瘳, 醫不能斲, 不能動神, 外爲柔弱, 亂至失常, 病不能移, 則醫事不行, 此治之四過也.”

4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診病不問其始, 憂患飲食之失節, 起居之過度, 或傷於毒, 不先言此, 卒持寸口, 何病能中, 妄言作名, 爲粗所窮, 此治之四失也.”

4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受師不卒, 妄作雜術, 謬言爲道, 更名自功, 妄用砭石, 後遺身咎, 此治之二失也.”

49) 皇甫謐 原撰. 高保衡, 孫奇, 林億 校正. 李雲 重校. 黃帝三部針灸甲乙經新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2. p.3.

50) 王冰 次注. 林億, 高保衡等 校正. 李雲, 邱浩, 蕭紅艷 重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1.

5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

표 2. 『黃帝內經』 중 ‘從容’ 용례

해당 편	‘從容’ 용례
素問·著至教論篇 第75	帝曰, 子若受傳, 不知合至道以惑師教, 語子至道之要. 病傷五藏, 筋骨以消, 子言不明不別, 是世主學盡矣. 腎且絕, 惋惋日暮, ①從容不出, 人事不殷. <sup>51)</sup>
素問·示從容論篇 第76	素問·示②從容論篇 第七十六 <sup>52)</sup>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③從容得之. 若夫三藏土木水參居, 此童子之所知, 問之何也. <sup>53)</sup>
	脈浮而弦, 切之石堅, 不知其解, 復問所以三藏者, 以知其比類也. 帝曰, 夫④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府,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藏. <sup>54)</sup>
素問·疏五過論篇 第77	是失吾過矣, 以子知之, 故不告子, 明引比類, ⑤從容, 是以名曰診輕(經), 是謂至道也. <sup>55)</sup>
	善爲脈者, 必以比類, 奇恆, ⑥從容知之, 爲工而不知道, 此診之不足貴, 此治之三過也. <sup>56)</sup>
素問·徵四失論篇 第78	故曰, 聖人之治病也, 必知天地陰陽, 四時經紀, 五藏六府, 雌雄表裏, 刺灸砭石, 毒藥所主, ⑦從容人事, 以明經道, 貴賤貧富, 各異品理, 問年少長, 勇怯之理, 審於分部, 知病本始, 八正九候, 診必副矣. <sup>57)</sup>
素問·微四失論篇 第78	是以世人之語者, 馳千里之外, 不明尺寸之論, 診無人事. 治數之道, ⑧從容之葆, 坐持寸口. 診不中五脈, 百病所起, 始以自怨, 遺師其咎. <sup>58)</sup>
素問·陰陽類論篇 第79	雷公對曰, 春甲乙青, 中主肝, 治七十二日, 是脈之主時, 臣以其藏最貴. 帝曰, 却念上下經, 陰陽⑨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 <sup>59)</sup>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⑩從容之道, 以合⑪從容, 不知陰陽, 不知雌雄. <sup>60)</sup>
素問·解精微論篇 第81	黃帝在明堂, 雷公請曰, 臣授業傳之, 行教以經論, ⑫從容形法, 陰陽刺灸, 湯藥所滋, 行治有賢不肖, 未必能十全. 若先言悲哀喜怒, 燥濕寒暑, 陰陽婦女, 請問其所以然者. 卑賤富貴, 人之形體所從, 群下通使, 臨事以適道術, 謹聞命矣. 請問有龜息仆漏之間, 不在經者, 欲聞其狀. <sup>61)</sup>

院 出版部. 1981. p.309.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5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5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5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2.  
 5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院 出版部. 1981. p.313.  
 5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3-314.  
 5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5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6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6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그러나 특히 「示從容論篇」과 「陰陽類論篇」의 해당 부분에 대해 王氷은 “<從容>, 上古經篇名也。何以明之。陰陽類論,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從容之道, 以合<從容>。明古文有<從容>矣。”<sup>62)</sup>, “公言臣所頌誦今從容之妙道, 以合上古<從容>, 而比類形名, 猶不知陰陽尊卑之次, 不知雌雄殊目之義, 請言其旨, 以明著至教, 陰陽雌雄相輸應也。”<sup>63)</sup>라고 하여 上古經의 篇名으로 보는 주석을 남겼다.

張介賓은 「陰陽類論篇」의 해당 부분에 대해 “《上下經》, 古經也, <陰陽><從容>, 其篇名也。帝謂念此經義, 則貴不在肝, 蓋特其最下者耳。”<sup>64)</sup>라고 하여 ‘從容’을 上下經의 篇名으로 주석하였다. 또 “頌, 誦同. <從容>之道可誦, 其爲古經篇名, 可知, 如<示從容論>之類, 是也. 以合從容, 合其法也. 雌雄, 如下文云, 以陰爲雌, 又<順氣一日分爲四時>篇曰, 肝爲牡藏, 脾爲牝藏, 皆雌雄之義.”<sup>65)</sup>라고 하여 앞쪽의 것을 고유명사인 篇名으로 보고 뒤쪽의 것을 의학에 있어 어떠한 법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보았다. 특히 『素問』에 「示從容論篇」이 있음을 ‘從容’을 古經의 篇名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이에 「示從容論篇」의 “從容得之”를 “脈有相類, 不能辨之, 則似此作彼, 致於謬誤. 此皆工之不明, 所以時多惑亂也. 若能知<從容篇>之道, 而比類求之, 則窈冥之妙, 可得矣.”<sup>66)</sup>라고 하여 從容篇의 道를 알아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의학의 妙를 얻는 것으로 주석하였다. 또 “夫從容之謂也” 역시 “引經語也, 如下文.”<sup>67)</sup>이라고 하여 “夫年長則求之於府,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

於藏.”을 從容篇의 文장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주석하였다. 「解精微論篇」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言授業於人, 而傳之行教, 惟籍此經論諸法, 然猶有不能十全, 故更問其詳也.”<sup>68)</sup>라고 하여 ‘從容刑法’, ‘陰陽刺灸’, ‘湯藥所滋’를 모두 의학 典籍으로 보고 주석하였다.

이상 ‘從容’을 (上)古經이나 上下經의 篇名 또는 어떠한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 논거는 文장의 구성과 文의가 원만하게 통하는지를 보아서 유추한 것이겠으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역시 張介賓이 주석한 바와 같이 『素問』 자체 내에 「示從容論篇」이라는 篇名이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12회의 용례 중 7회의 용례를 모두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5회의 용례는 온전히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文장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든 해석이 되어서 앞뒤의 구절과 文맥이 통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文장에서의 해석이 전체 ‘從容’의 해석과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黃帝內經』에서의 ‘從容’은 비슷한 시기에 저작되고 성격을 같이하는 雷公黃帝 問答篇들에만 쓰인 용어이므로 이편들 안에서의 용례는 상호 연관성을 가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쓰인 경우에도 그 명칭이 상징하는 바가 「示從容論篇」의 대략적인 개요와 부합하여야 한다. 「示從容論篇」 자체가 ‘從容’이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쓰인 일례로서, ‘從容’을 표방하는 소위 “古經의 篇” 또는 “上下經의 篇”이 어떠한 용례를 유추해볼 수 있는 現傳 文헌이기 때문이다. 이에 ‘從容’이 의학 저작의 명칭인 고유명사로 쓰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례를 포함해서, 어떠한 의학적 의미를 유추해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의미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黃帝內經素問』 제75 「著至教論篇」, 제76 「示從容論篇」, 제77 「疏五過論篇」, 제78 「微四失論篇」, 제79 「陰陽類論篇」, 제81 「解精微論篇」 여섯 편에 쓰인 총 12회 ‘從容’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었다.

院 出版部. 1981. p.324.

62) 王氷 次注. 林億, 高保衡等 校正, 李雲, 邱浩, 蕭紅艷 重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p.470-471.

63) 王氷 次注. 林億, 高保衡等 校正, 李雲, 邱浩, 蕭紅艷 重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481.

64)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496.

65)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499.

66)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505.

67)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505.

68)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707.

### 1) 比類의 확장(引比類)

「示從容論篇」에서 雷公은 黃帝의 질문 권유에 대해 肝虛, 脾虛, 腎虛가 모두 몸이 무겁고 안절부절 못하며 답답한 증상을 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각각 木, 土, 水의 五行으로 比類하여 접근해 들어가는 문제를 질문한다. 그러나 黃帝는 雷公의 질문은 삼척동자도 아는 기본적인 것인데 왜 물어보느냐 하고, 다른 예시를 들어 보인 후, 이는 ‘從容’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한다.<sup>69)</sup>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sup>③</sup>從容得之.<sup>70)</sup>

무릇 脾氣가 허하여서 나오는 浮脈이 肺의 맥상과 비슷하며, 腎氣가 작아서 나오는 浮脈이 脾의 맥상과 비슷하며, 肝氣가 켜져서 나오는 沈散脈이 腎의 맥상과 비슷한 것은 이는 모두 의사들이 때때로 혼란스러워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從容을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판단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예시한 문제는 肝, 心, 肺, 腎의 脈을 춘하추동 四時의 弦, 句, 毛, 石에 단순 比類하는 정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즉 脾가 병든 맥이 肺脈과 유사하고 腎이 병든 맥이 脾脈과 유사하고 肝이 병든 맥이 腎脈과 유사한 상황이다. 물론 맥상과 함께 동반하는 다른 병증을 보아서 해당 병증의 五臟 귀속을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맥상에 대해서는 의사가 어떠한 인식작업 및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논리에 맞게 따져보면, 脾가 병들어서 肺脈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과 정말 肺脈 사이의 비슷하지만 다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腎이 병들어서 脾脈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과 정말 脾脈 및 肝이 병들어서 腎脈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과 정말 腎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들의 五行 귀속은 엄밀히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들의 구분을 類를 비교함 즉 ‘比類’라고 하여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유사하게’ 나타나는 맥상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는 데에는 五行 속성의 단순비교 외에 좀 더 세분화된 인식의 방법 즉 보다 잘게 나뉜진 ‘인식의 눈금’이 필요해 보인다. 五行 속성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오히려 그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해 틀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黃帝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의 방법이 바로 ‘從容’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從容’이란 환자의 병증이나 外候를 파악할 때 단순 五行 속성 비교로 다 구분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방법이며, 이는 類比推理 즉 比類가 연장 내지 확장된 것[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를 보다 세밀한 인식의 눈금을 가지고 측량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從容’의 방법으로 파악한 둘 사이의 작은 양적인 차이가 결국 그 질의 귀속을 다르게 결정짓게 된다. ‘從容’이 가지는 이러한 의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어 관련 문장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脈浮而弦, 切之石堅, 不知其解, 復問所以三藏者, 以知其比類也. 帝曰, 夫<sup>④</sup>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府,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藏.<sup>71)</sup>

병자의 맥상이 浮에서는 弦한데 뼈까지 눌러보면 石脈으로 단단하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며, 肝脾 腎 세 臟으로 다시 물은 것은 그 類를 비교하는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씀하시길, 무릇 從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자의 연령이 청년이면 六腑에서 찾고 소년이면 經脈에서 찾고 장년이면 五臟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6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7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7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是失吾過矣, 以子知之, 故不告子, 明引比類, ⑤從容, 是以名曰診輕(經), 是謂至道也.<sup>72)</sup>

이 잘못된 나의 과실이니, 자네가 그것을 안다고 여긴 까닭에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比類를 확장하여서 從容하는 것을 밝히었으니, 이러한 까닭에 이름하기를 『診經(진단의 경)』이라고 하고 이를 지극한 道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善於脈者, 必以比類奇恒. ⑥從容知之, 爲工而不知道, 此診之不足貴, 此治之三過也.<sup>73)</sup>

脈에 능통한 醫者は 반드시 類를 비교하는 것과 특수한 병을 파악하는 것과 모양을 측량하는 것으로 써 압니다. 의사가 되어서 앞의 세 가지 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진단이 족히 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치료함에 있어 3번째 과실입니다.

## 2) 醫者의 功이 많이 드는 醫事(人事)

‘從容’이 쓰인 雷公·黃帝 問答篇들에는 ‘人事’가 자주 등장한다. 기존의 ‘人事’에 대한 해석은 환자의 빈부귀천이나 음식거처 같은 개인 정황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주가 되고, 특별히 問診을 통하여 생활환경 습관 음식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sup>74)</sup> 그러나 “人事不殷”<sup>75)</sup>, “不明尺寸之論, 診無人事”<sup>76)</sup> 같은 문장에서의 ‘人事’를 환자의 생활환경, 빈부귀천, 습관 등 개인 정황으로 보고 해석하면 문의가 잘 통하지 않는다. 雷公·黃帝 問答篇에서 ‘人事’는 특히 ‘從容’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從容不出, 人事不殷”, “從容人事”<sup>77)</sup> 같은 구문들에서 그렇게 보인다. ‘從容’이 보다 세밀한 인식의 눈

금을 가지고 병증이나 外候의 미묘한 차이를 측량해서 파악하는 인식작업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은 醫者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예컨대 의학 서적에 기술되어 있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木의 병이라 하더라도 청년이면 膽病, 소년이면 足厥陰肝脈이나 足少陽膽脈의 병, 장년이면 肝病으로 증상과 外候에 대한 계산을 보정해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醫者의 환자 개별상황에 대한 고려와 짐작, 판단이 세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여러 가지 醫事 중에서 특히 醫者의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從容’은 바로 醫事에 있어서의 사람이 하는 일 곧 ‘人事’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人事로서의 從容은 환자의 병증이나 外候를 판단하는 진단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으로는 환자의 음식거처, 빈부귀천, 습관 등 생활환경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雷公·黃帝 問答篇에서 ‘從容’을 ‘人事’라고 기술한 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의술을 펼치고 의학을 전수해서 醫業을 융성하게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從容’ 즉 醫者가 세밀하게 공들여 병증이나 外候를 구분하는 사람의 노력을 닦는 일이 관건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醫業에 있어 의학지식을 담은 의서와 치료의 방법이 되는 鍼, 灸, 탕약 등이 중요하지만 정작 그 융성과 존망은 환자를 대해서 사람이 실제로 공들여 수행하는 일인 ‘從容’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특히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대표로서 ‘人事’로 칭하여 들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從容’이 가지는 이러한 의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어 관련 문장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帝曰, 子若受傳, 不知合至道, 以惑師教, 語子至道之要. 病傷五藏, 筋骨以消, 子言不明不別, 是世主(至)學盡矣. 腎且絕, 惋惋日暮, ①從容不出, 人事不殷.<sup>78)</sup>

황제가 말씀하시길, 자네가 만약 가르침을 전하여 받고서도 지극한 도에 합치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

7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2.

7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3.

74) 朴炫局, 金基郁,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pp.91-92.

7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9.

7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7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3-314.

7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9.

승의 가르침에 의혹을 가지기 때문이니, 자네에게 지극한 도의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병들어 五臟을 상하여 筋과 骨이 녹았는데, 자네의 말이 분명하지 못하고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의 지극한 학문이 다한 것입니다.賢은 장차 끊어지려 하고 어둑어둑 날은 저무는데 모양을 측량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니 醫事에 있어서 사람이 공들여 하는 일이 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故曰, 聖人之治病也, 必知天地陰陽, 四時經紀, 五藏六府, 雌雄表裏, 刺灸砭石, 毒藥所主, ⑦從容人事, 以明經道, 貴賤貧富, 各異品理, 問年少長, 勇怯之理, 審於分部, 知病本始, 八正九候, 診必副矣.<sup>79)</sup>

그러므로 말하길, 성인이 병을 다스림에는 반드시 天地의 陰陽과 四時의 기준·비리와 五臟六腑의 雌雄表裏와 침과 뜸과 찌름과 독약이 주관하는 바와 모양을 측량하는 醫者의 공들이는 일을 얹으로서 『經』의 도리를 밝힙니다. 귀하고 천함 가난하고 부유함에 각각 차등되는 결을 구분하며 나이의 어리고 많음, 씩씩함과 겁약함의 결을 물으며, 나누어진 부위를 살펴 병의 뿌리와 시작 및 八正과 九候를 알면 진단이 반드시 부합하게 됩니다.

是以世人之語者, 馳千里之外, 不明尺寸之論, 診無人事. 治數之道, ⑧從容之葆, 坐持寸口, 診不中五脈, 百病所起, 始以自怨, 遺師其咎.<sup>80)</sup>

이러한 까닭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천리의 바깥으로 치달으니, 尺膚와 寸口를 논하는 것에 밝지 못하면 진단에 있어 모양을 측량하는 醫者의 공들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수를 측정하는 도리는 모양을 측량하는 醫者의 공들이는 일의 근간이 되니 앞서 촌구를 잡아서 진단이 五脈에 적중하지 못하면 온갖 병이 일어나는 바를 처음에는 스스로 원망하다 스승에게 그 허물을 돌립니다.

### 3) 形體의 상세한 陰陽 편차를 측량(刑法, 陰陽, 治數)

‘從容’을 ‘比類’를 확장하는 것[引比類]으로 볼 수 있고, 또 雷公·黃帝 問答篇 저자들이 醫業에 있어 존망이 달린 중요한 ‘人事’로 의미부여 하였음을 이해하였다더라도, 醫者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從容’을 시행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대하여는 “治數之道, 從容之葆”<sup>81)</sup>와 “却念上下經, 陰陽從容”<sup>82)</sup>, “從容刑法”<sup>83)</sup> 같은 구문들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治數之道, 從容之葆”는 특히 ‘從容’을 시행하는 방법이 ‘治數’에 바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黃帝內經』에서 ‘數’는 자연이나 사람의 각종 구체적인 법칙이나 규율 특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칙이나 규율을 말한다. 경맥의 길이, 뼈의 길이, 營氣가 하루동안 인체를 순환하는 횟수, 하루 동안의 사람의 호흡 횟수 이러한 것들이 모두 ‘數’이다. ‘治’는 질서 있게 하다, 다스리다, 견주고 비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학에서의 ‘治數’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인체 현상의 구체적인 법칙이나 규율을 견주고 비교하는 일, 즉 인체 현상의 구체적인 법칙이나 규율을 숫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견주고 비교하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측량하는 일이 곧 ‘治數’이다. 따라서 “治數之道, 從容之葆”는 인체를 측량하는 도리가 ‘從容’을 시행하는 근간·마당이 된다는 말이다. 이에 ‘從容’은 사물의 본질이나 로고스를 抽象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 형태, 용적, 길이, 넓이 등을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단위를 가지고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하고 그 결과로 사물들 사이의 편차를 인식하는 과정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 과정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사물들의 五行 속성을 抽象해서 동일한 類에 귀속시키는 五行歸類보다는 하나의 사물 속에 여러 차원으로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陰陽

7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313-314.

8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8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8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8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24.

속성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측량하고 비교하는 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肝과 푸른색과 筋이 오행 중 木에 歸類됨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肝과 푸른색과 筋에 동일하게 내재하고 있는 ‘木’이라는 본질 또는 로고스를 抽象해 내고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從容’을 해서 하려는 것은 동일한 ‘木’이라는 象을 내재하고 있는 肝과 푸른색과 筋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려는 것이며, 그 방법은 肝과 푸른색과 筋에 대해서 臟腑, 表裏, 內外, 大小, 長短, 形色 같은 여러 차원의 陰陽기준을 적용해서 그 편차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從容’은 五行歸類의 구분보다는 陰陽편차의 측량과 더욱 가까운 개념이며, 이에 “却念上下經, 陰陽從容”에서 고대의 의학 경전인 『上下經』의 篇名이 「陰陽」과 「從容」 또는 「陰陽從容」이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며, 같은 취지로 雷公·黃帝 問答篇 중에 「陰陽類論篇」이 있어 現傳하고 있는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從容刑法”이라는 구문은 ‘從容’이 본질이나 로고스 즉 象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形狀 즉 모양을 가져서 용적, 길이, 넓이, 높이, 밀도 등등을 측량하고 숫자로 나타내어서 미묘한 편차도 비교하여 구분해낼 수 있는 상태를 그 대상으로 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학에 있어 ‘從容’과 가장 반대의 지점에 위치하는 개념은 ‘抽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從容’이 가지는 이러한 의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어 관련 문장들을 해석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素問·示②從容論篇 第七十六<sup>84)</sup>

소문, 모양을 측량하는 醫者의 공들이는 일을 시범해 보이는 것을 논설한 편 제76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③從容得之.<sup>85)</sup>

무릇 脾氣가 허하여서 나오는 浮脈이 肺의 맥상과

비슷하며, 腎氣가 작아서 나오는 浮脈이 脾의 맥상과 비슷하며, 肝氣가 썩어져서 나오는 沈散脈이 腎의 맥상과 비슷한 것은 이는 모두 의사들이 때때로 혼란스러워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모양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脈浮而弦, 切之石堅, 不知其解, 復問所以三藏者, 以知其比類也. 帝曰, 夫④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府,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藏.<sup>86)</sup>

병자의 맥상이 浮에서는 弦한데 뼈까지 눌러보면 石脈으로 단단하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며, 肝脾 腎 세 臟으로 다시 물은 것은 그 類를 비교하는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씀하시길, 무릇 모양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자의 연령이 청년이면 六腑에서 찾고 소년이면 經脈에서 찾고 장년이면 五臟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是以世人之語者, 馳千里之外, 不明尺寸之論, 診無人事. 治數之道, ⑤從容之葆, 坐持寸口, 診不中五脈, 百病所起, 始以自怨, 遺師其咎.<sup>87)</sup>

이러한 까닭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천리의 바깥으로 치달으니, 尺膚와 寸口를 논하는 것에 밝지 못하면 진단에 있어 모양을 측량하는 醫者의 공들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수를 측정하는 도리는 모양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하는 일의 근간이 되니, 앉아서 촌구를 잡아서 진단이 五脈에 적중하지 못하면 온갖 병이 일어나는 바를 처음에는 스스로 원망하다 그 허물을 스승에게 돌립니다.

雷公對曰, 春甲乙青, 中主肝, 治七十二日, 是脈之主時, 臣以其藏最貴. 帝曰, 却念上下經陰陽⑥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sup>88)</sup>

雷公이 대답하여 말하길, 봄과 甲乙의 天干과 푸

8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8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8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1.

8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6.

8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르름은 인체의 肝에 적중하여 주관하여 일 년 중 72 일을 다스리니, 이 脈이 주관하는 계절에 신은 그 臟이 가장 귀하다 여겨집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길, 물러나 『上下經』의 「陰陽에 관한 편」과 「모양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하는 醫事に 관한 편」을 떠올려보면 자녀가 귀하다고 말한 바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sup>89</sup>從容之道, 以合<sup>90</sup>從容, 不知陰陽, 不知雌雄.<sup>89)</sup>

雷公이 말하길, 신이 뜻을 다하여 經脈을 전수 받아서 ‘從容’의 道를 외워 터득하여 모양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하는 법에 부합되게 하니, 陰陽과 雌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黃帝在明堂, 雷公請曰, 臣授業傳之, 行教以經論, <sup>90</sup>從容形法, 陰陽刺灸, 湯藥所滋, 行治有賢不肖, 未必能十全. 若先言悲哀喜怒, 燥濕寒暑, 陰陽婦女, 請問其所以然者. 卑賤富貴, 人之形體所從, 群下通使, 臨事以適道術, 謹聞命矣. 請問有臆患仆漏之間, 不在經者, 欲聞其狀.<sup>90)</sup>

黃帝가 明堂에 계시니 雷公이 청하여 말하길, 臣이 醫業을 주어서 전함에 『經』에 쓰인 論으로써 가르침을 행하니 즉 「從容」의 형체를 측량하는 법과 「陰陽」의 침놓고 뜸 뜨는 법과 「湯藥」의 기르는 바로 치료를 시행함에 賢과 不肖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완벽히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환자의 슬프고 기쁘고 노하는 정서와 건조하고 습하고 춥고 더운 거처의 상황과 陰과 陽, 婦女의 일을 먼저 말하게 함은 그리 병들게 된 연유를 청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천함과 귀함은 사람의 형체가 따르게 되는 바이니, 여러 아래 사람들을 醫事に 임하여서 그 道와 術을 적절하게 하도록 함은 삼가 명을 듣고 있습니다. 청컨대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 『經』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여쭙려 하니,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從容’의 12회 용례에 대해 雷公·黃帝 問答篇들에 제시된 단서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의 ‘從容’이란 구체적인 形體의 상세한 陰陽편차를 측량해서 인식하는 의사의 행위[人事]이며, 이로써 의사는 類가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나 外候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도 구분[引比類]할 수 있게 되어서 환자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대 동아시아 의학의 성립기에 ‘從容’은 五行속성을 단순히 ‘抽象’하는 ‘단순한 比類’보다 훨씬 중요하며, 따라서 임상에서 시범해 보이고 교육하고 전수해야 할 醫業의 존망이 달린 의학적 개념이자 행위였을 것이다. 그 개념과 행위의 흔적들이 雷公·黃帝 問答篇들에 남아 있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하고 있었다.

서양의학이든 동아시아 전통의학이든 의학은 인체의 출생·성장·생식·노화·사망 과정과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리·병리·치유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출생·성장·생식·노화·사망 과정과 생리·병리·치유 현상은 모두 인체에서 이루어진다. 인체는 물론 살, 뼈, 내장, 피부 같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물질이라고만 생각되기 쉬운 모든 살이나 뼈나 힘줄이나 혈액에도 魂, 神, 意, 魄, 志가 깃들어 있다. 그렇지만 살과 뼈와 내장과 피부와 혈액 등으로 이루어진 인체는 形體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형체는 사람이 죽어 魂, 神, 意, 魄, 志가 더이상 깃들지 않은 때에도 상당한 기간 유지되어 천천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魂, 神, 意, 魄, 志가 본질적 象으로서 중요하대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으로서 인체가 지니는 形體를 인식하고 측량하는 행위와 방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黃帝內經』 雷公·黃帝 問答篇에 제시된 ‘從容’은 동아시아 의학의 바로 이러한 부분을 대표하는 개념이자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도 고대의 동아시아 의학은 ‘抽象’과 ‘從容’이 짝을 이루어 본질에 대한 추구와 형체에 대한 인식이 의학의 두 축으로서 고루 비슷한 비중으로 역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黃帝內經』 雷公·黃帝 問答篇에 제시된 ‘從容’의

8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8.

9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24.

의미 추구로부터 알게 된 고대 동아시아 의학의 이러한 원형이 현대 한의학의 추구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의학은 그 역사적 궤적을 볼 때 魂, 神, 意, 魄, 志의 본질을 抽象하는 방법은 보존하였으나 形體를 ‘從容’하는 개념 및 행위는 점차 소홀히 여겨져 잊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평할 수 있겠다. 오늘날에는 인체를 形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다루는 ‘從容’의 개념과 행위가 거의 전부 잊혀져서, ‘抽象’한 가지 방법만으로 전통의학의 명맥을 보존하기에도 힘든 현실이 되었다. 수천 년 전 “從容不出, 人事不殷”이라 쓴 經句가 마치 오늘날의 현실을 예언한 것 같다. 이에 『黃帝內經』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從容’의 개념과 의학적 행위로서의 실체, 효용적 가치 등을 추적하여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학으로서의 본질적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향 설정에 작은 고임돌이 되고자 하였다.

#### IV. 결론

1. 醫學 이외 문헌에서 ‘從容’은 대체로 사람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여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지녀 외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침착하고 깨끗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또 ‘舉動’ 즉 사람의 행동거지 자체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2. 『黃帝內經』의 雷公·黃帝 問答篇들은 오랜 『內經』 저작 기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前漢 무렵에 저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편에는 인체를 중흥으로 연결해 공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인 經絡의 발명에 기반하여 小(微)鍼으로 그 脈氣의 흐름을 조절함을 핵심 기술로 하는 고대 동아시아 의학이 막 완성되던 때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그 임상의학의 대체·개요 및 정황과 전수·교육 과정이 담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黃帝內經』 중 雷公·黃帝 問答篇에만 등장하는 ‘從容’의 의미와 의의를 고찰함에는 ‘從容’이 고대 동아시아 임상의학의 대체·개요 및 정황과 관련되어 있

다는 점 그리고 임상의학의 전수·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3. 『素問』 제75 「著至教論篇」, 제76 「示從容論篇」, 제77 「疏五過論篇」, 제78 「微四失論篇」, 제79 「陰陽類論篇」, 제81 「解精微論篇」 여섯 편에는 ‘從容’이 총 12회 나온다. 12회의 용례 중에는 王氷과 張介賓의 주석을 참고하였을 때 ‘從容’을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7회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素問』 자체 내에 「示從容論篇」이라는 篇名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5회의 용례는 온전히 의학 저작의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從容’은 12회의 용례 문장 속에서 앞뒤의 구절과 문맥이 통하도록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만 한다.
4. 『黃帝內經』에서 ‘從容’은 ‘比類의 확장(引比類)’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從容’이란 환자의 병증이나 外候를 파악할 때 단순 五行 속성 비교로 다 구분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방법이며, 이는 類比推理 즉 比類가 연장 내지 확장된 것[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를 보다 세밀한 인식의 눈금을 가지고 측량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黃帝內經』에서 ‘從容’은 ‘醫者의 功이 많이 드는 醫事(人事)’라는 의미를 가진다. ‘從容’이 보다 세밀한 인식의 눈금을 가지고 병증이나 外候의 미묘한 차이를 측량해서 파악하는 인식작업이라고 할 때, 이는 의학 지식의 단순 기계적 적용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醫者의 환자 개별상황에 대한 고려와 짐작, 판단이 세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된다. 이에 醫事 중 사람의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從容’을 ‘人事’로 일컬은 것으로 생각된다.

6. 『黃帝內經』에서 ‘從容’은 ‘形體의 상세한 陰陽 편차를 측량한다(刑法, 陰陽, 治數)’는 의미를 가진다. ‘從容’은 사물의 본질이나 로고스를 抽象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 형태, 용적, 길이, 넓이 등을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하고 그 결과로 사물들 사이의 陰陽편차를 인식하는 과정에 가까운 개념으로 생각된다. ‘從容’은 五行歸類의 구분보다는 陰陽편차의 측량과 더욱 가까운 개념이며, 形狀 즉 모양을 가져서 용적, 길이, 넓이, 높이, 밀도 등등을 측정하고 숫자로 나타내어서 미묘한 편차도 비교하여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의 形體를 그 대상으로 하는 의학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의학에 있어 ‘從容’과 가장 반대의 지점에 위치하는 개념은 ‘抽象’이라 할 것이다. 고대의 동아시아 의학은 ‘抽象’과 ‘從容’이 짝을 이루어 본질에 대한 추구와 형체에 대한 인식이 의학의 두 축으로서 고루 비슷한 비중으로 역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히려 ‘從容’은 五行속성을 단순히 ‘抽象’하는 ‘단순한 比類’보다 훨씬 중요하며, 따라서 임상에서 시범해 보이고 교육하고 전수해야 할 醫業의 존망이 달린 의학적 인식개념이자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의학은 본질을 抽象하는 방법은 보존하였으나 形體를 從容하는 개념 및 행위는 점차 소홀히 여겨져 잊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인체를 形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다루는 ‘從容’의 의학적 개념과 행위가 거의 전부 잊히게 되었다. 이에 『黃帝內經』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從容’의 개념과 의학적 행위로서의 실체, 효용적 가치 등을 추적하여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학으로서의 본질적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향 설정에 작은 고임돌이 되고자 하였다.

### 감사의 말씀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References

1. 屈原 著. 崔富章, 李大明 主編. 楚辭集校集釋·下.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5.
2. 屈原 著. 劉向 集. 王逸 章句. 洪興祖 註. 楚辭補註. 臺北. 廣文書局有限公司. 1962.
3. 司馬遷 著. 張大可 注釋. 史記全本新注·三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0.
4. 아마다게이지 저. 윤석희, 박상영 옮김. 중국 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수피노바. 2016.
5. 王冰 次注. 林億, 高保衡等 校正. 李雲, 邱浩, 蕭紅艷 重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14.
6.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7. 張昭遠 外 4人 共編. 許嘉璐 再主編. 舊唐書·第三冊.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8. 鄭玄 注. 孔穎達 疏. 阮元 校勘撰. 十三經注疏·禮記注疏(影印本). 서울. 學古方. 발행년미상.
9. 朱熹, 呂祖謙. 張伯行 集解. 近思錄集解. 臺北. 世界書局. 1975.
10. 陳澧 注. 禮記集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13. 皇甫謐 原撰. 高保衡, 孫奇, 林億 校正. 李雲 重校. 黃帝三部針灸甲乙經新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2.
14. 강민휘, 김기욱. 뇌공-황제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17. 30(2).  
<https://doi.org/10.15521/jkmh.2017.30.2.083>
15. 柳姪我. 『黃帝內經』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 -戰國~漢 時代精神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1).

- <https://doi.org/10.14369/skmc.2017.30.1.145>
16. 朴炫局, 金基郁.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3).
  17. 宋聞兵. “從容”拾義. 古漢語研究. 2004. Vol.65.
  18. 朱玲, 吉文輝. 《素問》“從容”淺識.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07. 9(6).
  19. 從容(漢語詞語). 百度詞典. 北京. 百度網訊科技有限公司. 2015. [cited on October 7, 2020]: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item/%E4%BB%8E%E5%AE%B9/3607?fr=aladdin>